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5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이정문 · 김영진
임호선 · 민병덕 · 한민수
김한규 · 윤준병 · 서영석
염태영 · 김준혁 · 이수진
강준현 · 윤종균 · 정태호
백승아 · 노종면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.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·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.

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,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·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. 최근 헌법재판소는 「민법」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,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

을 한 바 있음.

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여분을 상속 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,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(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
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
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
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3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

대우를 한 경우

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118조의 제목 “(準用規定)”을 “(준용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第1001條”를 “제1001조”로, “第1008條”를 “제1008조”로, “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”를 “제1008조의2, 제1010조는 유류분에”로, “準用한다”를 “준용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) 유류분 상실선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</u> <u>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</u> <u>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</u> <u>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</u> <u>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</u> <u>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</u> <u>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</u> <u>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</u> <u>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</u> <u>을 선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</u> <u>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</u> <u>대하게 위반한 경우</u> <u>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</u> <u>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</u> <u>양의무</u></p> <p><u>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</u> <u>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</u></p>

<p>第1118條(準用規定) 第1001條, 第1008條,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.</p>	<p><u>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3. <u>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</u></p> <p>③ <u>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第1118條(준용규정) 제1001조, 제1008조, 제1008조의2, 제1010조는 유류분에---준용한다.</p>
---	---